옥누몽 권지오
597.49
1044
v.5
BERKELE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옥누몽권지오

실동하나탁쳥병 쳥도슨슨롱환산

각셜원쉬사당집의셔ㄴ줄을보더니홀연밧

긔여신소으는소릐나며일위쇼년이ᄂᆞᆯ건하창의

로손의빅우션을쥐ㄷ로연이ㄷ려온ㄴ미목이

쳥슉해ㄷ옥안명동이못지아녀한젹체갈복

흑물쌀지라원쉬황방이네ᄃᆡㄷ와ᄅᆞ로셩은인

셰우흑련몸으로의탐이황변을받은와이곳의

지나다가쳔셩의ᄀᆞᆸ호신ᄌᆞ홀을굿ㄷ져상회흠

모흠앙이러니빌리디가라치시물바라나이다셜

셜왈ᄂᆞᆫ나는유방이다토ㄷ음이부흉ᄂᆞᆯ나연분이잇

기로이르나니한젹체갈부흑타이곳지ᄂᆞᆫ부

의남졍되ᄂᆞᆫ곳지라남방인이ᄂᆞᆼ부을ᄉᆡᆼ각
ᄒᆞ일간집을오ᄒᆞᆫ화을꼿지지아니ᄇᆡ옥ᄒᆞ현영혼
이왕ᄂᆡ허더니맛참왼숙의더ᄌᆞ이차쳐의지ᄒᆞ다
가근혈서외조ᄅᆞ려이로노라왼취다시졀ᄒᆡᄒᆞ믈쳐
오뒤힝ᄌᆞᆫ오삭의갈뒤조ᄅᆞᆫᄒᆡ믈므르더니이곳의
와함션이녀흥쳬뒤작ᄃᆞᆯ베일안지간ᄌᆞᆯ이션헌
ᄌᆞ이념시알ᄉᆞᆯ웅이무삼ᄌᆞ졀이잇가쳔ᄉᆡᆼ이잘
소왈노뵈일즉ᄒᆞᆫ실을붓들너ᄃᆞᆫ강ᄌᆞ숙만년
을너곳의써ᄌᆞᆨ엿더니왼키ᄃᆞᆯ이뇌양쳔음우숨
현뒤변힝인라랴을다ᄅᆞᆫ게ᄒᆞᆫ난고ᄌᆞᆯ여ᄎᆞᆫᄌᆞᆯ이나
니임의졔어허엿스니념네치말ᄂᆞ두어내리우인다
두어졈숄노즈뫼왼키을ᄒᆞᆫᄌᆞᆫᄌᆞᆯ라왼취라시믈ᄌᆞᆫ

총의홋터져〻습〻현바람은국주의이랑아내
숙졸숙하언덕내리의호두난외의복숙지켜〻두
벽비터〻은현지졍이스터지더라이의휜〻는여나
아갈쉬쳔롱이쇄뤼현여산줄로무여뻥쇠을둡
는둣줄더라왼쉬지나는만뼝을잡아나라의즁쳑
을무른더터지더왕이지금오륙즁의제시이다
왼쉬우폴왈씨후즁이여거셔넋나되츠만변이뒤
왈씨후동욘붙더업나이라터거놀이죽로병
너욕지죄왈네일쥬드로네만인이복셜화찰나
와발줄기울씨후동복셩라놀거놀어져이후
중이업다줄는다왼쉬뒤호흔여주만뻥일인을
근쳔의셔버터〻다시만뼌다려왈네임의알ᄅᆞᆷ즛

나니바로일을외지안ᄂᆞᆫ주이저로주어리라ᄒᆞ니ᄡᅡᆼ
이러ᄅᆞᆸᄒᆞ여러ᄆᆞᆯᄡᅡᆫ왕이ᄌᆞᆫ손을두세의난와ᄒᆞᆫ
쳐는ᄡᅡᆫ왕이겨나려ᄯᅡ흑동의머북을ᄀᆞ한쳐는가
ᄡᅡᆫ왕을뵌ᄃᆞ려오주동의이져왼속의더ᄌᆞᆫ이오륙
동을쳐거든ᄯᅡ흑동의나탁이은실을엿다가머북
헌ᄌᆞ손을거나려ᄌᆡ홀을엄습ᄒᆞ여니가와흉흉ᄒᆞ랴
혼ᄃᆞ라ᄒᆞᆯ나이다왼쉬바야ᄒᆞ로와흉셜셩가로치미
헛되지아니ᄆᆞᆯ차ᄐᆞᆫᄒᆞᆫᄌᆞ손ᄯᅡ을불너여ᄎᆞᄂᆞᆫᄒᆞ랴
ᄒᆞ니소손며쳥녕ᄒᆞ여ᄌᆞᄌᆞ손을네세의난와각ᄀᆞ지회
호니라이셔ᄡᅡᆫ왕이ᄯᅡ흑동의잇쇠오륙동동편의
ᄯᅡ로잇셔온은ᄂᆡ수를ᄃᆡᄡᅡᆫ장쳘북ᄅᆞᆸ으로가ᄡᅡᆫ
왕을뵌ᄃᆞ려장속을여오ᄌᆞ주동의ᄭᅵ북을여

완슉의뎌고이오륙쳐기을거다리더니고각
이진텬ᄌᆞ ᄂᆡ안원쉬리군을거나려바로오륙동을
치거늘텰복탐이가만왕이되여동몰을열고
싸고졉젼혈셔나탁이병진의셔오륙동치물응
동여뫼복텬ᄌᆞ손을거나려니후동의쇠들줄을
여안원슉의뒤동으로넘ᄋᆞᆸ고져더니후동셔텬
의일리난왈쉬일지군을거나려길을싸아쇠살
올나나탁이뎌경ᄒᆞ여텬이당황ᄒᆞ동텬오조ᄯᅩ난
왈쉬나쇠니시살ᄒᆞ여좌우협곤을여나탁을에워
싸고서살을드니텰복탐이나탁의뒤키혀졸보오
륙동을바라고나탁을구ᄒᆞᆯ셔난리만왕이삼리

낭원쉬각졔군을호령ᄒᆞ여이우이싸호라가나
탁우이임의계교궁진ᄒᆞ며삼리낭원슈의진토우
로채ᄅᆞᆯ어온삼신이황향ᄒᆞ여낭병외솜ᄂᆞᆫ
불더죡지못ᄒᆞᆯ바단거ᄒᆞ에뫼쉰가슐혜ᄉᆞ지ᄅᆞ
오륙물으로다라나ᄅᆞ죄동구의이로여중문이닷처
ᄃᆞ불우의일리낭원쉬호령ᄒᆞ여왈나탁아네다
빈ᄂᆞᆫ왕이도레을주ᄅᆞᆯ빈알ᄅᆞ네여거잇ᄉᆞ물몬ᄂᆞᆫ
다너임의오륙동을어더시나밧비빌거나지향복
졸라넌이의낭원쉬뒤우편을한번쇨이나탁의ᄂᆡ
되우의달난홍진이바져나려지나나탁이혼불ᄂᆡ
쳬ᄒᆞ여몸을ᄃᆞᆯ쳐남을바라ᄅᆞ달아나더니쏘일
원모쟝이길을막ᄀᆞ셩케ᄒᆞ며왈쇤분쟝이여

반졸이 일세의 ᄃᆞ토ᄂᆞᆫ ᄇᆡ 살기을 발ᄒᆞᆫ거ᄂᆞᆯ 원슈 진평
ᄃᆞ려 번거ᄒᆞᆫ 쥴을 으ᄃᆞ 좃옥을 ᄭᅢ이 달녀 와ᄂᆞᆫ이
졔여 등이 항복ᄒᆞᆯ 엿시여 보다가 와 군셔ᄒᆞ기 어려이
여의ᄃᆞ 혀와 ᄃᆞ로 조산쳔 길이 셩쇼ᄒᆞᆫ ᄂᆡ 의양을
셔 길을 가라 쳐라 ᄒᆞᆫ 인이 나ᄀᆞᆼ혀ᄃᆞ라 원슈ᄒᆞ여 시근
쳥을 ᄂᆡ져 와ᄂᆞᆫ 나라이 ᄇᆞᆫ화을 일오ᄂᆞᆯ 나여라 낫서
나가 히ᄀᆞᆫ 삼혈 베이 ᄂᆡ 오아 ᄀᆞᆫ이 연일 험노 발졍 외ᄀᆞᆫ
허리ᄂᆡ 삼ᄀᆞᆫ을 슈일ᄒᆡ여 삼병일 쳥ᄀᆞᆫ 케 ᄒᆞ리라 ᄒᆞ
ᄃᆞ 원ᄎᆔ 쇄장을 모아 술 ᄂᆡ ᄃᆞ 바도록 ᄒᆡ여 ᄀᆞᆫ종을 조금
치 양ᄒᆡᄃᆞ 모ᄃᆞᆫ 장ᄒᆞᆯ이 열을 바다 할을 걸ᄃᆞ 발
제 안장을 벗겨 ᄒᆞᆯ을 쓰기ᄃᆞ 군셔 각ᄃᆞ 혀여 져 함오을
좌리이 엄세 창을 베ᄃᆞ 낫ᄭᅩᆷ ᄀᆞᆫ ᄂᆡ 뫼여을 나노ᄒᆡ

졸내공즁이취치를여졀여방비ᄒ미업ᄃ호
만병을오랑캐라욕ᄒ며울밧긔를다ᄒ여만병
을초롱ᄒ여ᄒ별구박ᄒ니만병이비록상ᄒ기를도
모ᄅ여일시형부를여섯시몰모쳐ᄂ전숙이라만
국의잇쇠그ᄉ셍을찬령ᄅ반의원숙의호대ᄂ감
ᄉ를나ᄂ줄언ᄂ욕귀박의쇠로의ᄂ즐ᄃ비울ᄒ며
대졸ᄂ로만ᄅ여[발]반일거니의졀반이나다ᄒ나일원
쇠다사북을치ᄂᄉ을보ᄋ고거치창검을평체이
졸ᄂ방비ᄒ기을ᄂᄃ이ᄃ더다이셔나죽이오륙홍을
별ᄂ코레륙동의ᄃ혜가만장여상의왈뒤병냥창
국의장나을한책제갈복즁의앙주쳐여수려니
오륙홍을잘책어지셰차저리오ᄃᄒ매쇠로의ᄂ을

라연방배혀니엄게흘다셔남북본슈젹더
물보니슈삼리즌줄이불앙퇴안쳐로울러라아발되
도라와이쳐로나라다되밀줄네나라이반신반의즐
여낭장의밀이다로물외상슐여즉시칼을그즐날
너나바와올녀쥔히가본후결단을되라슐드츅러방별
라일더밍장을다려드오루등을향슐여오르구을
오라가본두르게쉬라타러경일을니병원슈의증을즐
외드렷드다.쳘을아낭장은나의삼북랑슈라그밀이어
지고히상쳐줄리이반다시병젼의셔날을유인즐
에줄다즐드밀네러을줄쳬가려흘더너흘연납함
슐젹나네일러즌뒤길을박드일엇뒤장이크게슐
러즐너와뒤병화의장즌동쳬너쳐계가다렷나더

나라을랏지발나닐미외방로일셩의일저로이네
다라와불리냥옥 장ᄉᆞᆼ미과를이ᄭᅥ지잇시니나라
을랏지발로숨복을절외분군내냥장이합
병즐여에외쇄뫼나라이쌰홀미움이엽쇄한텬
을혜처로쳐편더니냥왈쉬리든울모파오륵동의
쇄나오며쳘롱것쳐에외쇄며샹만리군이일제
이예거숭홀여초평이쳔지진동하더라이쇄쳘복
탐아발뒤귀루동의잇쇄만왕의도라오물기다리
더니오륵동의쇄탐샹이운이롤내여군졸이굽보글
니냥장이대경하여만병쇽백병을동총을직회
라를ᄅᆞ굽히오륵동으로오다가미란을만나려편선
여함의뢱장이만왕을구해쳐오며나라을

으로다와난내와양원쉬일야과간대ᄌᆞ롱을소

어도뵈동굴의ᄌᆞ뢰가그게ᄒᆞ고졀서쇄장이쥐

하왈ᄌᆞᆫ근의병장이일원ᄒᆞᆫ삼쳔이어렵다ᄒᆞ거

늘이제원숙는숙일지간나라의중학을조용이

여르시나즌는울숙ᄂᆞᆫ치아니ᄒᆞᆯ시ᄂᆞᆫ쟝숙을일흐ᄆᆡ

엄스니신거보신운ᄌᆞᆫ되빗ᄂᆞ로리어ᄒᆞᆯ가ᄒᆞᆯ나이다

원쉬호왈공동이그쉬우물일ᄂᆞᆫ그어려부물생

각지못ᄒᆞᄂᆞᆫ도다나ᄂᆞᆫ본계낭쇄동학을옹이일

고국기로쇠호재이나ᄒᆞᆯ몬반다시그빗난빅잇시니라

더욱조심ᄒᆞᆯ거시나엇지ᄒᆞᆫ번니거모로쉽게빌ᄒᆞᆯ쇄

용곤동은일심ᄒᆡᆼᄒᆞᆯ물배과노라ᄒᆞᆯ려와서왼나

라이대록용을일고쇄ᄒᆞᆯ을거나쇄화다롱

문을닷닷거놀원쉬거즛ᄅᆞᆫ소을호뎡을여나복와
돌을술내남본연덕의울으려을나나탁이용치
냥흘ᄃᆞ다ᄡᆞᆫ시셔을날내방비흘거놀쇼부문을
쳐화다롱밧그려도라당내ᄢᅦ리평을근셔이보고
일모톡ᄃᆞ라와년일롱ᄣᅡ낭장으롤슉쳔거울거
나져화아롱밧그롤리난체흘려나탁이영ᄃᆞ병불온
이러내졔오일의원쉬소손ᄣᅡ을불너기ᄣᅡ내낙출을
뎡흘ᄃᆞ동ᄣᅡ낭장을삼쳔거시죽어여츤ᄂᆞ들파흘내
세광쉬각ᄃᆞ쳥병을ᄃᆞ나가내라이쇄나탕이롱국을
주재직희ᄇᆡ냥젼와셔셰호른흘러가물너나불보
ᄃᆞ뎌퇴왈실일네의ᄇᆡᆼ젼빅ᄇᆡᆫ려병이귀훅동국
편귀신이되리흘다흘ᄃᆞᄇᆡᆫ병슉실인을노아

병젼동편을탕재ᄒᆞᆯᄇᆡ 그옹냉즐는 거책을
봐아ᄅᆞ를타ᄒᆞ여나슈을평줄여일아ᄂᆞᆫ삼정은
되여즙혀보려더 병젼의셔주식슈은줄는슈레나
역즐다줄여상상의셔나려다보내십여되박지불
빗치삼ᄂᆞ오ᄂᆞ이오난지라즙히 빙장이연을각알
쳔지식주어냉 병의울냉줄는슈레울강활줄
여오뤼빈알준셔 빈군의심된게셔이잇거른빙녕
되이저레셔주저 빌나냉강이청녕줄ᄅᆞ각길을
난와갈셔월셔은희 니현더 병뱀슈벽병이섭
여슨슈퇴을모퇴차ᄅᆞ나아오뤼즌는험뫼즌ᄅᆞ발
의방울울때여 길을춘준나아온여장쉬길을셔
츅줄여오커줄 빈장이보ᄅᆞ셜각줄뤼슨야함뫼줄너

이낭경달흘가두리ᄆᆡ오고ᄂᆞᆫ셔젹으니리젹ᄒᆡ
너덥지아니ᄒᆞᆫᄯᅢ일시의ᄌᆞᆯ늘ᄒᆞ여가ᄂᆞᆫ기ᄅᆞᆯ
ᄇᆡᄂᆞᆫ체너병병이러권ᄋᆞᆯ여슈릐ᄋᆞᆯ봐뢰ᄂᆞᆫ각ᄀᆡ도
망ᄒᆞᆫ니ᄇᆡᆫ강이칼을ᄲᅢ여다라나ᄂᆞᆫᄌᆞᆫᄉᆞᆫ을ᄲᆞᆯ은은
췌ᄂᆞᆫᄇᆡᆨ일변ᄊᆞ호며일변후시슈혜을모라가나
ᄇᆡᆼ병이ᄇᆡ다가당켜못ᄒᆞᆫᄂᆞᆫ듯시ᄒᆞ여거너ᄇᆡᆫ장이
슈췌ᄂᆞᆫ여화라ᄒᆞᆼ의이ᄂᆞᆫ나ᄒᆞᆨ이뤼회ᄅᆞᆯ여ᄒᆞᆫ분
엄ᄂᆞᆫ슈뤼을부뢰와보내평실ᄒᆞᆫ슈시이라섞로치
하ᄅᆞᆯ며승ᄒᆞᆫ둔더니탐워ᄯᅩ보ᄂᆞᆫ니ᄇᆡᆼ병이ᄯᅩ온너니
다ᄅᆞᆫ니ᄇᆡᆫ장이임으로각ᄀᆡ일쳔ᄀᆡ식거나뢰가ᄲᅡᆯ
회ᄂᆞᆫ뎨십분ᄉᆞᆫ되혀ᄲᆞᆯ나부ᄒᆞᆨᄒᆞ나각ᄀᆡ형님ᄂᆞᆫ
금히올ᄉᆞᆫ가나삼ᄉᆞᆫ배ᄇᆡᆼ군을이슈십승슈혜

눌 둔 ᄣᅡ 낭장이 다시 보지 아나 ᄒᆞᄂᆞᆫ ᄣᅡᆼ 병을 일ᄂᆞ니와
여고의 북을 벗저 병 병을 잉히 ᄂᆞᆫ 속쉬 올의 구이
모롸 화라 등의 이르니 차시나 탁이 낭장을 볼내ᄂᆞᆫ
도롸 오기을 기다리다가 희 불 ᄌᆞᆫ 승줄 써 곱리 등 몰을
열ᄂᆞᆫ 드러나 속헤 봉의 둘 내뒤 희섞 일 셩뒤 ᄒᆞ요 왈나
탁아 대병 왼쉬 속 십승 불을 보내지나 밧베 내리
울 버혀 사례 혀롸 언니의 속리 주식을 엳ᄂᆞᆫ 불이나
화량이 충쾰 ᄂᆞᆫ 여둔 몰의 불이다 이여 쵤셩을
녹이 ᄂᆞᆫ 저롸나 탁이 창롤 간 변비 차 못 ᄒᆞᆫ ᄣᅡ 낭장
이 둔 줄의 드러 둔 롱쇄 줄 혀내 명각 간 둥 궁속
목의 다아 화라 일 둥이 셔뒤 냐게 하이 셔나 탁이 제
괴너 그치 못ᄒᆞ여 볼 보ᄂᆞᆫ 곱희 ᄣᅡᆯ 거올나 참렬코

재혜더니믄득함셩이뒤진을ᄇᆡ일원노쟝
이조쳥을ᄃᆞᆯ대호왈뒤병원슈의대군이ᄋᆞᆼ
주의오신이나탁은ᄲᆞᆯ니나와항복ᄒᆞ라ᄒᆞ며나는ᄃᆞ
시ᄃᆞ려오ᄇᆡ동바낭장다협공ᄒᆞ며동ᄒᆞᆼ셔도ᄒᆞᆯᄒᆞ
나함셩도ᄒᆞᆫ을산쳔을울리치ᄂᆞ엽엽화광은동중
의ᄌᆞ욱ᄒᆞ니나탁이싸화나치못ᄒᆞ든ᄃᆞ히붓은물이
바람을ᄯᅡ라비인쳑소리라봄을새여란거조동물
을나뮈쥐ᄃᆞ이발쇄와원슈가ᄂᆞᆫ길을ᄲᅡ거ᄒᆞᆯ바탁
시형세숣혀며싸샹의쳐그게소리ᄂᆞᆫ여왈나ᄂᆞᆫ도로
나대ᄒᆞᆼ은복욱을ᄲᅡ지안ᄂᆞᆫ다ᄒᆞᆯ나원슈은길길
을빌ᄂᆡ병일다시ᄌᆞᆫ은을절단ᄒᆞ소쳐ᄒᆡ버버ᄂᆞᆫ모
양이좌소순비ᄯᅥᆨ지쥐일ᄃᆞ쳐이제괴진ᄒᆞ드힘이

잔듸ᄆᆡ향북지아니ᄒᆞᄃᆞ라나ᄒᆡ출ᄒᆞ다나ᄒᆞᆨ왈
이번식홍운젼ᄂᆡ러ᄉᆞᆯ노강ᄉᆞ이슈이ᄂᆞ층젼ᄒᆞ
다즁나복슨쾌ᄒᆡᄆᆡ잇실이오병일ᄒᆞᆫ번ᄃᆡ젼을ᄂᆞᆫ
쳐ᄒᆡ나나왼ᄉᆞᆨ은길을빌니ᄃᆡ왼ᄉᆡᄆᆡᄉᆞᆯ을ᄂᆞ거울노
혀진ᄂᆡ러울ᄃᆡ쪽ᄂᆞᆫ도ᄒᆞ셔ᄂᆡ나ᄒᆞᆨ이라ᄒᆞ나나ᄒᆞ왼ᄉᆡ
화라동을ᄇᆞᄌᆞᆫ어ᄃᆡ동즁의ᄃᆞᄒᆞ가ᄇᆡᆨ셩을안무줄ᄂᆞᆫ
지ᄒᆡᆼ을살ᄒᆡ보고왈이ᄉᆞᆺ운ᄃᆡ곤이오ᄎᆔᄉᆞ족지ᄆᆞᆺ
혈못지라즁ᄂᆞᆫ곤을거나ᄒᆡ화과동ᄋ복강방의비
산넘ᄉᆔ즁여진쳐ᄇᆡ실ᄉᆞᄆᆞ복ᄒᆡ왈나ᄀᆡᆨ이ᄂᆡᆼ식겁
달ᄂᆞᆫᄒᆡ즐몰ᄂᆞᆫ엇ᄶᅵ아ᄃᆞ시ᄂᆡ야고왼쉬소왈나ᄒᆞᆨ이동즁
의나가아난옷ᄃᆞᆫ나의ᄂᆡᆼ식긴즐기울기라ᄒᆡᄆᆡ화알
ᄂᆡᆼ증ᄆᆞᆯ보ᄂᆞᆫ엇지겁ᄃᆞᆯ치아ᄂᆞ리오ᄒᆞᆫ소와강

폐측계희ㅣㅣ나ᄅᆞ라이임의동하샤삼쳐을일
너시내일은바근현도젹이라이왕이견한이몃쳔슈
이올염녀를노이비번은힘을다하여약젼을할
가늘나이섭불삼가라거계을염리를ᄅᆞ준순을촛계
을여기다되ᄅᆞ라허니폐경이그께정복줄더라이셰
나라이삼쳐동홍을심여일을거간일ᄅᆞ폐이동퇴을
동오즁ᄃᆞ러가니오대고공쳔가온대위을홍이가장그니
실쳔이절승줄ᄅᆞ리쳔이랑활를여슈셩혈폴죄
양라이왕셰ᄅᆞ상젼을여되올이여곽희면나라되
뒤의일계되니탄월이폐나의동내와동홍을일ᄅᆞ계
쵀니엇지슈슈무책오ᄅᆞ리이ᄃᆞ순을폐오변일은출
으물ᄅᆞ리보졔이여한번세화슨쳐을결리눈즁리라흘

ᄒᆞ나니 귀병엔슉은 친히 나와 싸호ᄌᆞᄒᆞ녀 발
울쳐 치나 셔나뇌 장ᄉᆞ이 귀호왈 우리 귀엔슉은
황병을 밧ᄌᆞ와 삼군ᄉᆞ병의 최 죵쳬ᄒᆞᆫ 실비엿
지나 갓ᄒᆞᆫ 아희와 졈젼ᄒᆞ 시리오 ᄂᆡ 기를 거ᄉᆞ려오
날ᄂᆞ도 쳐ᄌᆞ시 혐ᄒᆞ여 승부을 다ᄉᆞ토리라 ᄒᆞ니 ᄉᆞ의 ᄇᆡᆨ
ᄂᆡᆨᄇᆡᆨ을 초ᄆᆞ즈어 바ᄅᆞ나 타을 취ᄒᆞ며ᄒᆞᆫ니 나타이
뒤ᄅᆞ혀여 ᄌᆞ우을 도라보니 혈인 낭장이 라 우의 셧다
가ᄂᆡ다라 ᄂᆡ 셜봉을 ᄃᆡ젹ᄒᆞᆯᄉᆡ 병젼의 최롤 비ᄒᆞᆫ인
이ᄇᆡ다라 삼장이 귀편슉 향의 나타이 바ᄅᆞ 보다가 분
봉여 졈ᄒᆞ여 벨은 슉엿을 거ᄉᆞ리ᄅᆞ ᄒᆞᄅᆞᆫ을 ᄇᆞ흠
셔ᄃᆡ 호일 셜의 ᄇᆡᆯ을 보와 나 봉여 거셰 황병을 더라 완
쉬 진 졀의 셔 승쳐을 보다가 ᄉᆞᄉᆞ 이려 져 왈 ᄂᆡ 파ᄋᆡ 쇄헛

쾨남에ᄭᅴ울얼ᄃᆞ아비낭모든다혀내에는오ᄅᆞᆷ의
한중기ᄲᅮ혀ᄲᅵ나나이살노그중글등게를되라흘
벼ᄒᆡ혀되의살을ᄲᅢ여나타의염신광을빗치나나타
이대조ᄒᆞ여장검을들ᄃᆞ발을달네ᄭᅩᆺ초달으니
ᄭᅡ닭이쇄조색화뒤편숙한의일변쇄ᄒᆞ버나ᄂᆞ혜
이족혀여상자ᄒᆞ더니소ᄉᆞᆫ뷔방천수을두드ᄃᆞ며
나와ᄒᆞ통왈나타야네흑발이ᄲᅥᆨ발이되도록쇄
ᄒᆞ나한번이나이길가너기는나우되위원숙는하날
이변실을울흉글셔혀게선더인이라상통훤봉글ᄃᆞ
하달지되ᄒᆞᆫ벼통을조화지거나울복불통지ᄒᆞ시나
네밧일이전중의은즈주버셔나저못ᄒᆞᆯ되라ᄒᆞ며벼일장
을읏ᄃᆞ도라가여나그대희원쉬일낭소리의

진문을 열고 나셔 ᄇᆡ우어 왈 나탁아 네 아모
리 조보용봉이 잇셔 ᄆᆡᆺ고 ᄃᆡ적고져 ᄒᆞ나 ᄂᆞᆫ 힘이 업고
지혜 조너여 용맹을 당헐 자 너여저 힘으로 다토리
오혀 ᄇᆡ우으나 삼순정줄이 일진을 뎨소타 이쉬나
탁은 여러 번 쿼를 녀 예거 쾌 결허여 분이 퀑좋은
바의 병진의서 일도로 갑흘 씨엉시 손리흘 ᄇᆡ비스흘
눈빌이 ᄇᆡ능 옥지언을 드드면 무병엽회 싸장이나
너여저 고순셩을 도타 보뢰오뎌 호일셩의 쌀을 쳐
쳐바조 양왼속거 다타드난 헌 쇄경 혼갓흔나 왼속
는 세소흔은 속퉤을 들너 견굴으로 로을 어쾡 티나탁이
급히 약라 질가온데로 쏫흔 드너 원속는 간데 업고 전
불이 랏쳐 ᄇᆡ겸주이 섯터 갓데롸 나탁이 려욱게 조

칼을두루며동중셔놀을여나오래쥴ᄂᆞ건ᄌᆞ온래
올베셔나거긋올여렴ᄂᆞ김히ᄃᆞ려가더니자셔쳘아
남장이ᄂᆞᆫ왕이병진의군히몰보ᄃᆡ경을여일졔이
친남올돌ᄃᆞ방길의돌임을여좌흡우돌을나순
분이쳘흥것치곳어베셔나거꼿을다ᄂᆞᆫ한봉이옐
나변ᄀᆞ믄울난죽다시몰이잇셔부울쳐몰울나변
쌍봉이잇셔검주이삼년을ᄃᆞ시셕이여우줄내흥일
열이되혀기올찰ᄃᆞ늑셥슨봉을물임은나진밧거
나지못흔어나닥이불과흥쳔을여범갓치날려더니
돌연가운ᄃᆡ일몰이잇셔열니내명원쉬운헤인
져불너왈나ᄃᆞᆨ아에쳬내흥쳔임지운흔여조너몰
운베셔나지못흘되니항복흘여죽기울변흘

로ᄌᆡ하의가로션신텽을뵈오되오ᄋᆡ의칼을ᄀᆞ되
ᄌᆞ믈ᄅᆞ잡혀난지라이뎍철아낭잘이걸을헤쳐
다가ᄃᆡ경혀여황방이붓들ᄅᆡ볼ᄃᆡᄉᆞ경연혀는
ᄌᆞ는뎍은붓그럼을도라보지아니ᄂᆞ니ᄃᆡ왕은셰
노ᄂᆞᆫ사쾌체을도라보쇼셔낭왼쉬비록번쇼ᄒᆞ나
지외가ᄂᆞᆫ의거잇ᄂᆞᆫ져ᄋᆞᆼ슉타야시비러보미ᄀᆞ흘가
을나이다이의난경에나안자울배ᄃᆞ두ᄅᆞ외걸
을녀왈원쉬황병으로남방을평별ᄒᆞ시며위
덕으로항복받ᄌᆞ져혀시몬이왕소주의셰조아는
비라여제우리ᄃᆡ왕이일시지분으로그릇젼기은
더조터그려조을다ᄒᆞ재못ᄒᆞᄅᆞᆷ으번원혼이

한울흡어그마음으로향복지어날가흘나여
다엿쉬숀왈너의엄의여러번용셔하엿시나이
번의도향복지아니하니이번은스치못흘리라하고
광이다시르왈이두번일은귀햔즈베록즉어도무
한열가흘나여야될쇄옷ㄹ두시거을들니셩분을
더욱니삼인이본견의도타와회하여경흘왈이죄냥
창주의빌네인복숍이되여주흘이두셩흘나쇄
궁녀쳘흘니쇄장운갈제그을게예이블울셜흘
게하다안네의광하일언예응셩흘왈은스졍이밧
당이일인을쳔거흘오리니흘인이나인운면오귀흘쳘
울불일네의회복흘되여야흘나락이제희흘여

뼈니우복죽장뮝닐에니한쳑뮝확의혐멍쳘
의손이타나탁이목로뒤멍즁쨩이어더텬손잠으
로쳔거구뎌예난노뮝별뫌노래근처을동의일
의온손잇시니즈호는온농도인이자출법이비샹
즁여는퇴호즁환부의신즁키물는내는히뮝축
울임의로부터니귀왕이지쳥으로쳥을신즉어지냥
변울근심을퇴잇고나탁이계희즁여뮝별을다퇴ᄒᆞ
치옥즁의나아가을봉도손을보아울내뫌오래동쳘
은남방의편쇄ᄒᆞ되이쇠즁국의일게되엿시셜셩
니비록물의의옹육을시나쇼한남방의탐이라바
다건디하산즁손저즈울안기지니시드도아죽시물.
빠라니이다을봉도인이쇼뫌뤼왕뫼지모

연계로일홈을동학을신인씨여셔회복을
티오나라에져비비옵일월션ᄉᆡᆼ이구제아니시면
이산의셔죽ᄀᆞ도라가지말ᄀᆞ려허나이다연화
의자못ᄀᆞ져ᄒᆞᆯ니온용로인이마지못ᄒᆞ샤쳔을여짐
으로갈셔도복을착ᄒᆞ고ᄉᆞ슴을타고만왕ᄒᆞ히
을동의일으러일으되빈되그져로을보혀ᄒᆞᆯ니대
용은병된속을나오게ᄒᆞ소셔나라이죽시짐밧
거나와뒤병된속와송복을걸우ᄂᆞᆫᄒᆞ니된쉬소
왈만취반다시청병ᄒᆞ여오미로다ᄒᆞᆯᄀᆞ뒤군을거
나려휘을동아회진을치니용봉도인이진상의
올나그진을이우이보더니경동ᄒᆞᄂᆞᆫ빗치잇셔이
유이긘연을염ᄒᆞ며칼을ᄃᆞ들어손방을가ᄅᆞ쳐

뵈온ᄃᆞᆺᄒᆞᆫ의뎨작ᄒᆞᆫᄂᆡ거셩벽녁이진즁ᄒᆞᆫᄂᆡ
목슉신장이병진을에워싸기을반ᄒᆡᆼ이나ᄒᆞ되
능히진을ᄭᆡ치지못ᄒᆞᄂᆡ도인이칼을더지고탄ᄒᆞ
여왈뉘병은쉬이아직도남아잇기로샹장이법인이
어어ᄯᅡ경쳔위지ᄀᆞ려잇시어대왕은우이려ᄒᆞᆯ오
초서져진법은쳔상목슉셩ᄌᆞ의움양진이니진
촌방몽을당ᄒᆞ야시이진이너ᄌᆞᆫ손위로이파바람
다우회쳠노치못ᄒᆞᆯᄂᆡ곤방현부리을ᄊᆞᆺ고금을
울니곤음음이라신병귀졸에법을기열여오니
이난당ᄒᆞᆫ현명러을되여술병으로당치못ᄒᆞ되
이다나다이라언을듯ᄒᆞᆫ방셩대주ᄒᆞᆫ왈연죽이
쥐는오뎨즁쳔을이겨낼쟈그리ᄒᆞᆯ오ᄇᆞ라ᄒᆞᆫ신

뎌현셩은남방을불상이보아라언외술와
가지안코뢰복게줄슈쳥은홍도인이침음낭주
와당지아니 한대왕이다시졀을여뫁션셩이홍시
갈으쳐지아니시면다인은만죵빅셩을불낫제
엄스니션셩을따라가홍신조뢰하나이며도인이
심불난뢰하여왈한가재방나이잇시나방열슈
셜헤죽일위지못할샐어랴뻔도외게재담방
회즐내대왕은즐달줄파아탁이대회허여죽시좌
우을불너ㄷ방약을꾸눈깨도언이빠아흐로발
울여왈빈도의소빅달ㄷ죽홍황녕빅송홍의
빗셕도호눈빅운셕화음안조화지을라 한지
현분지어부불ㄱ홍재즐셔내이호언어내면너의병을

대작지 못하되 내와 쏫저놉흔도덕이놉흔발가도
서산봉을 나려아내를 내리왕이 형섬을다하시
거안에서 발을처이 날가를 나여다연이와 스슴을
타ᄂᆞ 처온동으로 가내러나 타어 죽사 혜벽을갓
초아 백운동을 춘춘가니 가해우음다나 타이구원
을청ᄒᆞᆯ여 적주를 돕ᄂᆞ 적주를도와 오러ᄂᆞᆫ 천
을차저여호 빨리은 칠목의 근표를 불우으러내
와천하 반석 반복무평ᄒᆞᆯ여 두실ᄒᆞᆫ 복이 이기ᄉᆞᆯ호
나인택으로 엿지를 리오
구반영 홍난하신　　두진별 원수퇴군
선사의 강남 홍이 반손여 생으로 이여의 효표 박ᄒᆞᆯ여의
지혈ᄅᆞᆯ데 업시 괴항무체하가 백운선생을 반

나산즁의〻락을비싣쉐의안향을분락되을
니졋시나그주을생각ᄒᆞᆯ변심ᄒᆞ여비챵ᄒᆞ여쉬왈을
보게더니일〻은도셔홍낭을볼너뵐으되게그뎌을
별견더산간의오취넝누쳐이엳거시뫼하엳뵈
누울주뎔러상이라고벽비록아넌거늘넘스나
곱일노붓혀슐엽을또쳐그듸의게젼코져흘너
손인희빌나낭이손뫌제ᄌᆞᆫ는ᄃᆞᆺ손온너즈의유향
니부유라다(목타)연방겻〻슐벗기나의는텰셔ᄃᆞᆯ이라
어져슬넘을베화부어슬퇴엿〻도셔술뫌그대이
졔쉐상을하직ᄒᆞ〻산즁의즁선코져ᄒᆡ더변베화
부이하다ᄒᆡ져너와만일〻즉의인연이엇쎄ᄃᆞ라가
기울생각ᄒᆞᆯ진뒤록너가지져조을베화ᄃᆞ라가ᄂᆞᆫ길

매을가르치니검술을배호려일년일월예작여한
복연은칼쳐는법을알고그술을보도니슌은
대황은그술을좃출은이오그쳐는법은몰나서나갈북
의가타치는바는쳔상참황션련의비결이라그즁
션을본즁우을의방을르그변화는우무을일회여
나반인키작헐샐일이라또형즁의두손칼에잇
시이얼흉은복통검여타일월쳔게와셩두분장
을뒤에줄이선여려쇠가온니겨낭이운쳔혜아갈
장박의비헐베이니범인의게쳔키이여화우넌더
니니제너을죽이니절쓰게즐타흔에절줄드벗으니
타비을느붓허밤이면슌녀울여소슌즐울회을소관즐
더타일흔혀려낫지1벼훈상낭으로신중의터

을닥ㄷ찬법을ᄉᆞ숩ᄒᆞ내검술을베화
셕박혀불이ᄒᆞ니라일ㄷ은흥낭이복용검을
울ㄷ검술을익혀더니ᄀᆞ흥형은여착한권을
가지ㄷ와셔소왈ᄉᆞ형은검술도비호려니와이착
을보ㄷ비호라이년셜현ᄒᆞ강병이라셜셩이ᄊᆞ
힘ᄇᆞ잠ᄃᆞ신ㄷ로도젹ᄒᆞ여왓노라ᄒᆞ이ᄒᆞᆯ나왈ᄉᆞ회
일죽이ㄷ범은어이갈으쳐실바ᄋᆞ엽ᄉᆞ저ᄃᆞ일죽이여
법은ᄲᆞᆼ뎡로이불거시이년가ᄒᆞ노니ᄲᆞᆯ니가ᄅᆞ더ᄂᆞ
되ᄒᆞᆼ은이ᄎᆞ왈니밤이ᄇᆞᆫ셜셩잠ᄃᆞ신ᄒᆞ이블타이
방셔을다보앗시니가장신통ᄒᆞ지법이라ᄒᆞ니시렴ᄒᆞ
여블거시니ᄉᆞ형은빌라ᄒᆞㄷ블법을써셔졀연을

냥ᄒᆞ며 군즁의 ᄃᆡ지니 일ᄃᆡ 동졍되거ᄂᆞᆯ 다시 진언
을 념ᄒᆞ며 돌을 입을 ᄲᅡ셔 무슈이 ᄃᆡ지니 ᄎᆡ운이 일
ᄂᆡ 셜징지 홀이 ᄂᆡ 쳔단 션녀 불이 나되 오ᄅᆞ니 불득
신소은 소리나 ᄂᆡ도셔 쳥운을 불너 왈 네 엇지 오
란ᄒᆞᆫ 쳐조을 ᄂᆞᆫ랑ᄒᆞᄂᆞᆫ다 ᄲᅡᆯ니 거두라 ᄒᆞᆯᄃᆞ 홍다ᄒᆞ며
실녀 왈 도가의 ᄉᆞᆷ가지 법은 ᄒᆡ ᄒᆞᆫ 현법이라 ᄒᆞ로
네게 쳔죄 아니 ᄒᆞ여 ᄃᆞ여 이졔 임의 누셜ᄒᆞᆫ 바 되엿
시니 ᄃᆡ강 비효에 부방을 나타 일이도 ᄯᅥ을 어 더 신명을
더러이 ᄃᆞ 크게 낭ᄒᆞ리 ᄒᆞᆯ 즁은 횡운에 타 허려 타시야
의 홍을 밀너 ᄯᅥ 오뒤 힘현 ᄒᆞ되 쇠 가지니 우도 불도
션조화 우도는 형되ᄒᆞᆫ 봄 못 경즁 ᄃᆞ 션불은 샹ᄃᆡ현
되 갓가우ᄆᆡ 그바 ᄃᆞᆫ 거ᄉᆞᆯ ᄯᅩ 후 지경ᄀᆞᆯ 더외의 져

므롯ᄃᆞ므를너나ᄌᆞᆷ실의모ᄌᆞ을셔홀연일ᄃᆞᄂᆡ려
몬밧거셔조손와홍낭의본ᄃᆞᆸ을듯ᄃᆞ가홍낭
의나오믈보ᄂᆞᆫ놀나키ᄅᆞᆯ되그간바을모ᄅᆞᆯ너라
홍낭이대경ᄒᆞ여조손러ᄃᆞ런대조셔ᄌᆞ왈이ᄌᆞ져
산중이라키뫼와모평이잇셔왕ᄂᆞ이터훤니경으로
이무리발다시나불힝현바ᄂᆞᆫ우리홍강방셔
슈작ᄒᆞ믈들에신즉다일을아ᄂᆞᆫ되여일심이잠
간졸중되되조다ᄒᆞᆯᄂᆡ화ᄒᆞᆫ줄더타일ᄂᆞᆫ은홍낭
이손삼낭라모예을아ᄒᆡ며가셤겨곤ᄂᆞ니ᄒᆞᄂᆞᆫ여연
덕의울나별ᄂᆡ바라보니황신온힘ᄃᆞ줄ᄃᆞ벡을
돌미잇셔빅회반발을미버들빗치라광다의
삼손울수룩게들는지화 방연이바라보다

목단화는물이소뮈올젹시녀슨삼낭다려
왈우리이산중의들어온지임의슈년이라그
쥭산쳔이아득히잇게되니엇지슬프지아니리오
장찻흔일을하시의츙원부모를다시보며삼낭젼
당의평텬을다시보리오언파의우키나되물셧
안지못흐니슨삼낭이위로왈노신은강남의잇
솔졔중일물슈오로뎐니녀눌역을역두어낫
주슐다우어바래여육슐어든쥭여득쳔줌흐여
주복을치우뎌이어쥬의은혹싱지부동의벼불
니며드듬덥게쟉어비린몸이쳥평흔들겹은열
술이회여오니그평션각우은엇더이아흔낭이에

오릐여왈ᄉᆞ람이셰상의나귀반다시칠평에잇ᄂᆞ
칠평어잇시외평은이쉽게나니평은이자려운거
슌한번부ᄃᆞ치뫼그란즐내흑한즐여졸도되ᄂᆞ고
나헤ᄂᆡ견강즐여쉬도쓴나에게그랑으로더부러동
시강남엔뮬이ᄒᆞᆫ셰호평량의횡츅편뫼색귀
와쥬방훤슈의아람다온물색이앙ᄂᆞᆫ최평이올ᄂᆞᆫ
생각나셔잇지못ᄒᆞᆫ븐인지상평에오일운평은
이라일그븐듀산천물셕으로이려셩각나거ᄂᆞᆫ려
물녀퀸퀵붕우와지게원별이려오삼냥이그앙
곤은셩각허ᄈᆞᆫ졸일ᄂᆞᆫ좆연리옹이려화졸량
의도퇴와잠을일우리못ᄒᆞᆫ려호셔훙울ᄇᆞᆯ너
도뤼네이산의잇슬날이젹ᄂᆞᆫ셰상의나갈

날은경주술나무비명은이라심회을살난
에발은네게일리육쳐잇시니일노을회을술건줄
게줄죄를근천히네여죽여축초을불어길으리내
왈혈나와장군방에게명산의쇄옥소을불어초
병을불나취시네이옥초을비화로죽고연에술
곳지이잇실이라홍이바다죽여번비로나본대셩술
쳐인넌거려보셔뒤회를여왈이옥뇌가본대쌍
으로셔일리는불장셩의게잇는니칸일로주의갈
거회여게잇실이라줄며와광음이자초맛주에임산
졸변에일은으로셔홍을울라되로왈셔울쳔여벽
회줄다가옥장은로혈상을찾은으로쳐왈네쳐벌을
일술나홍이본니일리큰별이콘니원뫼돌엿쳐진술

뒤월은이본쳥셩인가ᄒᆞ나이다도셔옷ᄂᆞ라시남방을
갈못쳐월은일티박이남녹을ᄲᆞᆷᄒᆞ나남방의병
화잇슬가ᄒᆞᄂᆞ라홍이뒤월을ᄀᆞ리변ᄒᆞᆫ죽의변ᄒᆡ잇
다ᄒᆞ시나니가도셔월문쳥셩이광쳐창ᄂᆞᆫᄒᆞ여ᄃᆡ
원을호외ᄋᆞᆯ엿시며홍수의반다시인겨나쇠ᄀᆞᆯ심년
뒤현쟉ᄎᆡ뒬가ᄒᆞᄂᆞ라홍이에소뤼월임의변화잇
시변엇지뒤형시쳘이되뢰이가도셔이쵸부다ᄒᆞᆫᄒᆞ
여나라시갈오ᄃᆡ일난일ᄎᆡᄂᆞᆫ즈ᄅᆡ의ᄋᆞᆯ회ᄒᆞ여라엇
지일시변화을밀ᄒᆞ되ᄒᆞᆯ니우ᄒᆡ말ᄉᆞᆷᄒᆞ다가졈쇼
의도라와감기짐ᄒᆞᆯ엿더니홀연붐이한곳의ᄋᆡ르
니살리ᄅᆞᆼᄒᆞ동ᄂᆞ동위ᄒᆡ각ᄒᆞᆯ배일리빈ᄉᆔ그게쇼뤼
ᄒᆞᄃᆡ일리남편을물ᄃᆡ쳐ᄒᆞ리ᄂᆞᆯ그남편을

ᄃᆞ쇠이보니이라ᄃᆞ니아ᄂᆡ오오ᄇᆡ블샹ᄒᆞᄃᆞᆫ낭
셩이라홍낭이ᄃᆡ로ᄒᆞ여복봉검을드러치니스ᄅᆡ
흘니ᄉᆞᆯ삼낭이셩희수어ᄒᆞ다가흔드려오기를홍
이잠을셰여다셔각지못ᄒᆞᄃᆞ셩각ᄒᆞᄃᆡ난ᄒᆞᆫ젹화
회잇셔몽뢰블길로라ᄒᆞ여쳬기ᄇᆡᆼ니박ᄀᆡ잇셔빙
연어ᄉᆞᆯ식을모로니주로적히나잇로리로ᄒᆞ여은
ᄒᆞᆫ현심우목골ᄒᆞ더니어쳐ᄂᆞᆫ왕이빅은ᄒᆞ의이로
려도ᄉᆞᆫ리빅오ᄇᆞᆯ평텬ᄒᆞ되도셔홍을보며오ᄃᆞ두시긔
신ᄒᆞᆯ여당의녀태나탁을마려예젹의라평의나타이
회햑리비왈라인이이왕션셩의늡ᄒᆞ신일홍을
우톄깃치못ᄒᆞᆫ와시나쳥쳥이박ᄒᆞᆯ여이졔야뫼오나

불빈ᄒᆞ시 갑도쇼이다 도셔당ᄉᆞ 왈 대왕은 텬승재
치로여지산 총한가 형증 쳑을 니갓쳐 삼방ᄒᆞ시
나산 논의 당처 비ᄒᆞ나 도쇼이다 왕이 다시 절ᄒᆞ고
왈 남방 오대 동텬은 다 인의 셰대 호상 젼ᄒᆞᆯ 난디어
져나 이제 줄녹의 일케 되오나 셜셩은 몰계을 가라
치ᄉᆞ되 부계ᄒᆞ여 쥭ᄉᆞ 쳐로셔 ᄉᆞ왈 산야 ᄒᆞ티ᄂᆞ니 미만
뫼울 뒤ᄒᆡ여 ᄊᆡ륙 다ᄒᆡᆺᄒᆞ여 몰을 주경ᄒᆞᆯᄯᆡ 로롬이
라 부산제ᄃᆞ 잇셰 대왕을 조으리잇가 ᄲᆞᆫ 왕이 ᄂᆞᆫ올
을 ᄒᆞ을녀 왈 라인은 드므미 왈나라셔ᄂᆞᆫ 남녁 가ᄌᆡ울
셩각ᄒᆞ뒤ᄯᆡ 말은 북방 바람을 ᄉᆞ랑ᄒᆞᆫ다 ᄒᆞᄂᆡ 헌
셩이 ᄎᆞᆺ현 남방잉으로 임의 남방의 계시니 그ᄯᆡ 회
팔을 주체 아니신 족의 이니라 바리 던디 신셩

운뵈지즁ᄒᆞ회복혈방ᄂᆡ을가라치ᄒᆞ셔션
싱이우어왈다시싱각ᄒᆞ니ᄃᆡ왕은담긴밧ᄃᆞ니
가쉬ᄒᆞ셔이의동ᄂᆞᆫ반ᄃᆞ시가ᄃᆡ각게을ᄃᆞᄒᆞ낭
을불너집요숙ᄒᆞᆫ평왈금일은네ᄃᆞ국의도리가리
너숙년은졔지의을미리죽마현심회을위ᄒᆞᆫ등
뎌어이졔이별을당ᄒᆞ니엇지챵연치아니리오ᄒᆞᆫ
낭여ᄒᆞᆫ젼ᄒᆞᆫ회ᄒᆞ여연ᄃᆞ을뭇ᄌᆞ온져도셔왈난ᄒᆞᆫ다
로너여너라셔쳔문숙불살ᄂᆞᆫ당쳬움여복ᄒᆞᆷ을마
그ᄃᆡ의졔병법을젼ᄒᆞᆫᄃᆞ쥐ᄒᆞ네다이졔그ᄃᆡ임우은이
진ᄒᆞᆫ그길운이도라옴여ᄃᆞ국의도라가기길이영화을
누리라병이나으히려미우의살기잇시너반년병화ᄒᆞᆫ

뫼온을 변화되여니와 십분 조심ᄒᆞ라 ᄒᆞᆫ낭이는 물을
졸ᄂᆡ왈 체격일ᄒᆡ 내ᄂᆞᆫ 조나가 ᄌᆡ조을 배화ᄂᆞᆫ 우나엇
과병화을 감당ᄒᆞ오며 또 언지 ᄅᆞ국의 도리가 되엿ᄂᆞ
비러ᄒᆡ가와 쳐 ᄎᆞᄉᆞ셔도 ᄒᆞ오면 그ᄃᆡᄂᆞᆫ 본이 천상 청ᄋᆞ
조문 장ᄒᆞᆼ다 축연이 잇셔 인간의 젹강ᄒᆞᆫ 연이 변의
망나되여 와기려 부지을 ᄌᆡ조ᄒᆞᆫ새 문란세음의 자도
ᄒᆞ실 배라 조영이 바삿 날은 이여도서 인ᄌᆞᆨ이여 다버져 달
내삼ᄅᆞ아다 이 여시 텬상 상천낭션이여 그ᄃᆡ 반일
수치 안니 번의 울 이ᄅᆞ비여 기시 죽셜ᄂᆞᆫ ᄂᆞᆫ 삼가 잇거날
나 ᄒᆞᆫ낭이 울 내져 비 숙변ᄅᆞ 내ᄅᆞ왈 금일 술ᄒᆞ울
셰나 온여 강ᄒᆞ엿어 내ᄒᆞ다시 돈하의 ᄌᆞᆯ올 되엿

의진쳣시나츌연이와져못홀되니병일다시다갈츈
여그을병혀물보되라츄여병즈의홍즁당이쳐군쵹
졔울되ᄅ이ᄂ병을거나쳐ᄃᆡ을홍뎡의갈을치며
쐬호기를쳥은나병졀예쐬ᄃᆡ군을거나져숙벽보
박거날진즁ᄂ홍낭이젼쇄을바라보니ᄆ치삼뎔
도ᄃᆡ와평졔ᄒᆞ여엄숙ᄒᆞ미온ᄃᆡ일은원소변ᄃᆡ장
이홍조금갑으로ᄃᆡ우뎐을쳐ᄅ손의숙리을갑아라
우와졔평이옹뒤홀엿시어ᄃᆡ병원쉬물알ᄅ손삼
낭으로출상낭은로진뎐의셔웨여왈소국이남병벅
누두여분목쐬쳥져인이섬슨니금일은ᄇ랑이평
뱁오로숭부을보ᄅ져라끔ᄃᆡ국응변ᄒ물보

ᄃᆞ대하니내병관리원슈는본래탄진을퇘
보게하소서하니내병진의쎄그리췩분병을여그ᄌᆞ퇴연
응줄여전슈저롱여잇서물보ᄃᆞ십니의계퇴줄여
ᄇᆞᆫ진을바타보니일리ᄒᆞ면광에오륙슴단협츅헌
복뼈볼원앙창ᄃᆞ오케울쉬ᄃᆞ허리여부운검을
퇴새니설연지퇴광해의반월이조롱ᄃᆞᆺ줄ᄃᆞ현과
싱은ᄌᆞ촉홍도원월이백ᄀᆞᆫ의나뎜갓거ᄒᆞᆯ낭월쉬
대경의아ᄌᆞ여쾌장을조해보이월이반라서반뼈
인물이어여하나탄이으퇴나저어흐여어더가서
주완을청ᄌᆞ니퇴ᄒᆞᆫᄃᆞ복울쾌여거울ᄃᆞᆯ너진쎄울
변즐여복ᄂᆞᆫ삼십츅여천ᄉᆞᆺ방위ᄌᆞᆫ난화슈화전오
퇴니홍낭이옷ᄃᆞ또복을펴여창ᄂᆞ이삼ᄉᆞᆫ거울ᄲᆞᆯ두

쇄의난화호졈진을쳐ᄂᆞ녹화진을훗틀ᄯᅢᄂᆞᆫ삼
낭으로진편의나쇄외여알ᄂᆞᆫ녹화진은숨평육
장의한가현진병이라ᄉᆞ녹의토졍진이잇쇠축
혀위홱혈기를난니달운진을쳐게둘퇴낭원
쉬북을쳐ᄯᅢ슉괴을ᄉᆞᆯ혜녹화진을변ᄒᆞᆫ쥴어칼
ᄃᆞ녹심ᄉᆞ를여덤방위의난화괄해진을쳐어훈낭
이복을치며쾌준을지휘쥴어쥐연오심오다쳣방위
을일외방원진을쵀괄해진을훗틀둘여샹문
을오드려긔본으로나옴여음방을쥐양방으로엽슴
둘ᄯᅢ온야쳐로다시왜여살한나타패걸휘녹화
진의낭의진을합둘엿시니실혼탈대진이타셩사
본하며졍본이잇ᄃᆞᆫ쳥방하품인방이잇

시여아수의뒤연진이잇셔여홋히위력하실가
을그라낭왼쉬뒤경을여흡히칼래진을괴롭여
좌우익을일워조익진을쳐여홍낭이방원진을
변호여일즈장사진을쳐로익진을홀울우녀에워
왈로익진은척수을뒤둘여시살해는진이라스수
이때상당이쟝순진으로서살을괴너달은진을처쇼쳐
왼쉬숙거을실려라우익을향둘여하익진을쵀
쟝순진네티울최여뇌쳔붕으로웨여왈남변아하쟝
순진으로도익진을호울는거순이아르익이벌을여학
익진이되여장순진네티울쳑은찬각지여여헤난노
홍낭이시혼들븍을최여장순진을난화동어그외여

티진을지나이는젹국을슉이는진이라홍낭이시
소즐내진을쓸ㄷ뎌헤디어원쉬뎌보술내뒤긍을볼
쎄여낭와여뎌진을가온뎨두ㄷ십변으로에워싸
니홍낭이웃ㄷ왜여왈이는희음후의상면귀복
이와디쥭다여진병이엄여ㄷ소쥭의오피뎨한긔이
이잇시나방비할가즐나니져즐을보리연내의여뢰
진을변화여다섯뎨의낭와오방진을치이그동쉬
을칠쥭남북방이좌우즐날디되여방비즐ㄷ남북
방을친즉동쉬방이좌우익이되여방비즐내차시
원쉬바라보ㄷ일너왈이영쳔하거쥐리이진병은
쳔하의영는바이오퇴상쥭재나을으ㄷ즐여스스로쾅
디현진이니슨빈오리라조차되못즐뢰로다

창법을자랑치말고살을바르려터는소리넝녀
군즁의나는살이골나와긔쳔문의독구을
맛치며득귀버셔져셔의혀러지니동쳐뒤조를
대일시의칭검을득죽[illegible]홍낭을쥐고져흔대
홍낭이옥슈을번드기며서의소쳐나ᄂᆞᆫ곳의
흘으는살이솟쳐올이여드러와동미낭장의갑옷
이일시의맛쳐너낭장이대경흘여싸흘슈졍영
쇄본진으로도라오믜긔쳔문이독구을집셔살드
벽나부을득죽내려호발만광은즘겨존을씻ᄂᆞᆫ
부테쳐말나홍낭이당지아녀그살노소여대찬즁
여번션나ᄆᆞ터나아져못게타ᄀᆡ쳔중이셩병이엇져된
고 옥쳐슈칭자용출굴 용즘단슈신수편

채시와찬ㄷ홍이흐르ㄷ는살을바근서나상치아녀
도쳐울들ㄷ홍낭의게다라ㄷ나홍낭이웃ㄷ마상의
박은다시셔ㄴ노동거이여출나나챤ㄷ홍이대조ㄷ는여디
로일셜의로쳐울ㄷ러힘것치비홍낭쌍검울훈
들내몸울날내ㄷ중의소스내와챤ㄷ홍이하날울
우러허곤울지배불나라ㄷ러어븐두평연헌소리
나내둑지쉬여지나챤ㄷ홍이번신나ᄆ솟나홍낭이다
시도라보지안니로칼을거ㄷ어지리낭의검법이찰
심이잇서다ㅂ둑구번씌칠생이오사랑을상치아니
홀여서나노쟝이령신을솟슙저못ㄷㄷ급히분진
으로ㄷ라옹너원쉬진상의셔낭걸승쥐을보라가다
로는여일쇄쟝쉬젹쟝을더쳑저못ㄷ내내쳐여

나아쳐소장을손로잡아이블을셜홀리라ᄒᆞᄃᆞᄯᆞᆯ
거울나ᄂᆞ아가키쳑ᄒᆞ켜ᄒᆞᆫ니소ᄉᆞ비갈왈웬슈의
쾌죵을시므로어제일디장손와결우시디잇고소
장이복용을나나아가이만장을잡아장ᄒᆞ의밧치되
이야ᄒᆞᆫᄃᆞ쥬시ᄯᆞᆯ달네나가니소손빈의찬법이신이ᄂᆞᆯ
녀디쳑ᄒᆞ려ᄃᆞ물기로ᄂᆞ부ᄒᆞᄂᆞᆫ지라이의방원쥬을
목쥬ᄃᆞ홍의게달아ᄃᆞ려쇄호려ᄒᆞ니낭이졍쳔슈향
의소사ᄇᆡ의찬쓴ᄂᆞᆫ법이졍모ᄒᆞ려ᄀᆞᆯ보ᄂᆞᆫᄯᆞᆯ을ᄀᆞᆯ며
심녀보을몰니쇄내우슈의ᄃᆞ려ᄀᆞ던부용검을더라
내고칼이번ᄉᆞᆫ의소슘여소손비의내려우의나쳐고나로
손비몸을쳐ᄒᆞᆫ며방쳔쥬을ᄃᆞ리고칼을밧ᄃᆞ려ᄒᆞ더
니홍낭이임의ᄯᆞᆯ을고와달네오녀우슈로칼

을바ᄃᆞ며짜속ᄒᆞ부용검을쏘려지나소ᄉᆞ
뷔몸을굽혀키터며졍으로빠르되ᄒᆞᆯ려어혼낭이
나ᄂᆞᆫ칼을빗ᄃᆞᆫ빌을달니며난숙의쌍검을일시
되러리나소ᄉᆞᆫ뷔황빙이치ᄅᆞᆯ며새호기을걸을치
못헐순이뷔홍낭이쌍검을바라ᄃᆞᆯᄂᆞᆫ바람모올나
듯굴너순방으로로쟈당너며이상의쇄춤추어벽
셜이날너ᄂᆞᆫ듯낙ᄒᆡ바람의날너ᄂᆞᆫ듯ᄒᆡ려어한졸
기즉론거을이안리것지이려나여빌다순람은졈
ᄃᆞ보지못ᄒᆞᆯᄃᆞ광기소리빙낭이소순뫼리쳔즐여방쳔주
을들ᄃᆞ동으로가연동의무숙복용검이증종의날
나버쇄을치변쇄의부용이복숙이헤려지변공종
을보면복숙부용검이현날의뫼사아순람은강디

셩각ᄒᆞ되ᄐᆡ날이불상이너기ᄉᆞ이런병장을ᄇᆞᆫ나
시도라ᄒᆞ여흔연이슉ᄃᆞ려물을ᄎᆞᆺᄂᆞᆫ졀ᄒᆞ는날은
금방울난화쟝군의공을갑흐리라ᄒᆞ더라흥난
조동텬ᄎᆡ소을ᄎᆡᆼ는너왕이갓ᄎᆡ메물기을발헌
대룡낭이소왈상인의ᄂᆞᆫᄎᆡ조왕을물ᄎᆡ하ᄅᆞ번으로
본비ᄎᆞ원이ᄎᆞ소이라왕이그ᄭᅩᆺ을어거지못동중리
실을ᄎᆡ여ᄎᆡ니손아ᄎᆡ조차야을지길셔셩각ᄒᆞ메
너비ᄅᆞ아너려나엇지ᄒᆡ와을모ᄅᆞᄅᆞ역신을도으며쟌
셩은발셔아로세ᄅᆞ빈왕의복츄을부탁ᄒᆞ셔나내ᄉᆞᆯ
으로일리병광병즐을실ᄒᆡᄒᆡ변외이어과나ᄐᆞᆨ을
구리ᄐᆡ잇다가그ᄎᆡ가기도ᄅᆞ리아닌어거ᄒᆞ여야낭ᄒᆞᆫ도
ᄎᆡ오이울이상빙을다가일게을셩각ᄒᆞ손아ᄎᆡ

올다래ᄃ변화본의올나병결을바라보니
ᄃ각이졔병을ᄃ등주이병낭한뒤졍렴소리나
셰심졍을보헤거늘동낭이헤좋와우졔올내여
일죽올한기이벽나이소슷은잠ᄃ방의등소일극
의죠병이물너가ᄆ물의방들여병긴줄광이소손줄
물너나도록즐니라이뫼셔ᄎ나스슬즐ᄃ월셕
이병낭한대도와가ᄃ기러기와둥충의술ᄏ우는
잔ᄒ비난라한대헤올희음년새둠ᄃ거라비나켠
뫼와부모올셔나니ᄎ보올원별ᄒᄃ셩버가ᄃ하옵이오
각출퇴오졀에술은강옷슬젹시ᄒ월은병낭출
여싱리ᄎ한줄거출창올빼내갈을질헤부득이
월을란을바라보아운한손현지희을금ᄎ못ᄒ더니문

두홍쳔의동소셩이반공의ᄒᆞᆫ가지로니ᄂᆞᆫ데쳐량ᄒᆞᆫ
ᄒᆡ여쳘ᄉᆡᆨ심장을녹이ᄂᆞᆫ듯ᄉᆞ향지ᄉᆡᆼ이ᄇᆞᆯ셕ᄒᆞ
물셔ᄃᆞᆺ지못ᄒᆞᆯ지라병진십반대즁이일시의진보ᄅᆞᆯ
쳐여오손로심회을진졍치못ᄒᆞ혹ᄂᆞᆫ무ᄅᆞᆯᄉᆡᆨ여졍ᄒᆞᆫ들
ᄂᆡ여혹일어나방황을ᄂᆡᄂᆞᆫ연즁홍이소오을ᄃᆞ다의락
ᄂᆞᆫ빈곤다졍은ᄎᆡᆨ각을노고빙연자실ᄒᆞᄂᆡ며ᄌᆞ몽도의
ᄂᆞᆫ병위을안고강리비음을ᄂᆡ소손뷔ᄒᆞᆫ졍을보더니
졍을ᄂᆡ혼미낭졍도심려지상을그거리슉상을ᄂᆡ소뷔
조용이졍홍의드러가왼슉거ᄅᆞ허니ᄂᆞᆫ서왼쉬경즁
의셔벼셕을보다가실혼이노티앙을여ᄒᆞᆫ날의울나
기셔남찬ᄇᆞᆯ을드ᄅᆞᄂᆡ여ᄒᆡ미니일ᄂᆞᆫ의기본살이박우여여불가
·자ᄃᆞ길을ᄲᅡ과ᄂᆞᆯ왼쉬테로더여칼을ᄲᅢ여드

리는족김을묵근듯가은순셩은남근의보양이아니
나그로일흔거ᄉᆞ라ᄒᆞ옵ᄒᆞᆫ거온은ᄇᆡ근의엄술
재나계리나모ᄅᆞ라ᄒᆞᆯ버도고금의옥쌍ᄒᆞᆫ인셔옵니근라
ᄒᆞᆫ변정국경셩ᄒᆞᆯ일ᄉᆡᆨ일가ᄅᆞᆯ나이다ᄒᆞᆯ너된쉬
실셩이옵고ᄒᆡ여계ᄀᆞ을정치못ᄒᆡ여라시야의흥
낭이ᄉᆞᆫ부쟈병으로쩐왕을구ᄒᆞ여뇌ᄂᆞᆺ셔나중구인
물로ᄒᆞᆫ빠그나라을ᄒᆡ치못ᄒᆞᆯ여ᄒᆞᆫ젹계병산ᄒᆞᆺ
아의심비올병물니ᄒᆞᆫ계고로스ᄉᆞᆫ로물너가게ᄒᆡ
뫼다가ᄯᅳᆺ밧과병쥔의일셩옥ᄉᆞᆯ셩이화당ᄒᆞᆯ버ᄇᆡ
족곡쟈부ᄃᆞᆯ을나음올이ᄃᆞᆯ너지이나ᄒᆡ근와시이ᄒᆡᆼ
슉ᄒᆡ나의셔달음이엄셔도앙셔봉이ᄋᆞᆼ정근화를며
황ᄒᆞᆫ것갓ᄒᆞᆫ니ᄒᆞᆼ낭이ᄉᆞᆫ근로뉵쳐을ᄂᆞ로ᄆᆡᆼ연

관실을여내리물숙기ᄂᆞᆫ생각을떠셔션생이발
을시더한쌍의쇠일너는몰쟝녀게잇셰ᄅᆞ주역로
타결거회여거잇다를시령이체위병원쉬몰쟝
셩인가괴금원숙의쳥병이난공간와홍션병이여
그손이잉셜를여도원숙뢰엿다를몬끼,지못헐일
이호하날이유져을기실제쌍으로로각을ᄂᆞᆫ임의
쌍이ᄂᆞᆫ셜주엇지를여남ᄲᅮ의난호ᄯᅢ그모이ᄂᆞᆫ더되게
울션ᄂᆞᆫ이의다시생각을대이옥저가님의졍현와이
엿,셜숙그복ᄂᆞᆫ쳐반다시그비위달지여환쳔이부
감을시션병읽을이호령을시여강남홍의뵈헐은양
숭져하,혹시모실이호ᄋᆞᆫ우쾌난공져변진의로왼
숙되여양선가에각일진련의쇠진범을보ᄂᆞᆫ동로

동초의두루ᄂᆞᆫ창쏫희서우의소릐나며상보가
여러져어홍낭이다시왜여왈ᄂᆡ다시좌편눈을ᄲᅡᆺ
쳐라하여ᄲᅧ시위소릐나며동최황겁하여급히엉
드러변을ᄂᆞ도라보니쳥룡이위로올너조최을
두루ᄂᆡ나오려ᄂᆞᆯ홍낭이소ᄅᆞᆯ복졍하여시외골현
쳥박을ᄯᅴ비최알을나ᄂᆡ엿더니셩ᄲᅧᆼ을보젼ᄒᆞ여
좃리ᄂᆞᆫ장은겸옥구회칼자루을보라ᄂᆡ숫더
을알ᄂᆞ다연이며졍졀숙향의쳔본이ᄒᆞᆼ어무니
칼자루이십여쳐이잇더라감히싀호지못ᄒᆞᄂᆞᆫ몸
을ᄲᅢ여도라보니병진쳐쟝이감히나갈져엉더라
난원쉬ᄃᆡᄅᆞᆯ들며닐어나쳥ᄒᆞᆫ손ᄂᆞ마을하ᄂᆞ지쟝ᄭᅴ
틴쳥나화챵을ᄃᆞᆯᄂᆞ동ᄃᆡ금외ᄒᆞᆼ시을최ᄂᆞ진쳔

의나셔나소식비가들에봘은원쉬황병을밧즈와상
순을좃츠독츌시나죽기안위와흉방이원슈일신의
달녀시며흉보순직의흉뎌히니진퇴의녀며가흘
일시저분을참지못흐셔드길바단기률외뎌흐를
도화보기방나셔나이며,져죽순을로런보지여나시며가
봄드라보흉흔서는흉드뢰아니가,을너이라,츠시번
원쉬소년에거즐흉낭의혀즈을보드한번절외본
드져혀며부당을드빌울노이,나가흉낭이원숙
의왕법편을혀뎌불보드쇼휸빌울져쳐비아,좌셕에흘
셔흉의흉병으로보계의게퇴낭군은몰나보와
오빈기비죽순너는몰이앙쳐는지라,졍신이황난
흘여다빈낭원숙의거역을보려니,좌셔원쉬

홍병이여신ᄂᆞᆫ나황텬아더와연결헌홍낭
이ᄇᆡᆫ나셔외의반경되믈어이알니요원슈챵을
벗겨홍낭을ᄭᅮ르[illegible]려워거ᄅᆞᆯ홍낭이급히ᄇᆡ
상의셔터리을즙혀쥐ᄂᆞᆫ녀슈출쌍겸사의셔리
져ᄃᆞ낭이발ᄒᆞ여왈실슈허여칼을노하셔나
원슈ᄂᆞᆫ잠간직장을범휴셔변챵을졉어승부
을결우승이다ᄅᆞᆯ내그셩음이쾌의어으믈ᄃᆞᆺ즙
히챵을넘ᄂᆞ구ᄅᆞ옹모을자셔이보더니홍낭이쥐
베것치나되갈을거두며도ᄅᆞᆯ빌거ᄂᆞᆯ나원슈
을ᄒᆞᆫ탄ᄒᆞ여왈쳔쳡기낭홍을상군이ᄂᆞᆫ조셔
가쳡이갈노상공을ᄎᆞᆺ차ᄭᆞᆯ리시나슈하소졸
이반젼의옛ᄂᆞ의심퇴에빈은ᄅᆞᆯ금아삼경의군

홍즁을못ᄒᆞ게ᄒᆞ니러셔아의홍낭이손심모낭
을되허여변원쉬낭홍은몰이ᄅᆞᄃᆞ가는쏫을ᄲᆞᆯ을
나삼낭이여희를여가바나현구을등뒤ᄒᆞ더ᄯᅡ셔
의낭원쉬장즁의구어셩막츌뒤금일반나리
진리홍낭인즉인연이합을ᄃᆞ스려부셩은여셔
오국가의안위차연의게달녀셔여이거셔만ᄃᆞ다행
이라이어ᄌᆞ신거젹어니기복거아니뢰오매는십분
봉병치못현바는세간의셩즐를여이곳의셔이오
믄이처의버여난쌜이라홍의원홍이유ᄌᆞᄒᆞ여나의
우신이로므의셩ᄌᆞ허볼잇ᄉᆞ리곳을여벽ᄌᆞ현쳡을
밴가ᄌᆞᄃᆞ의홍실별내의앞ᄉᆞ현져남방왜만으
내ᄃᆞ홍장쳔ᄒᆞ라소산반비왜ᄃᆞ홍이셩즐을여왕

네소오ᄅᆞ라가게이곳의오믈보ᄂᆞᆫ졍ᄉᆡᆼ의왼흉ᄒᆞᆫ
셤ᄉᆞᆫ을셜웬ᄀᆞ재해빈가쾌님의금야삼경을발
ᄒᆞ엿시나라발기다려보러와ᄒᆞᄂᆞᆫ측을도두ᄂᆞᆫ되
난외과여견평초뢰울쾌여보려야반삼경의화
우울믈너ᄂᆞᆫ장울지워ᄂᆞᆫ뒤ᄒᆞᆫ번여아이오한ᄒᆞᆼ이소
ᄒᆞᆫ녀측불이써지ᄂᆞᆫ쾌러ᄂᆡ여한ᄒᆞᆯ기ᄃᆞ로ᄂᆞᆫ거불
이진ᄒᆞᆼ으로무과게것과색치여일리소년장이쌍
검을집ᄂᆞᆫ나려셔나왼쉬일뿐ᄋᆞᆯ나ᄂᆞᆫ깃거ᄒᆞᆫ셕이보
니이봄무셩ᄂᆡᄉᆞᆫ빨오우ᄂᆞᆫ된일넘애오뫼ᄉᆞᆫ부ᄅᆞᆯ던낭
이라어리ᄂᆞᆫ시발이업시무연찰시의낭ᄌᆞ몸왼흉
낭이측너흔벽이날을ᄂᆞᆫ진이나ᄉᆞ라진리흉낭이나
고ᄒᆞᆨ으로믓ᄂᆞᆫ실아ᄉᆞ라발을씻지못ᄒᆞᆯ뢰ᄒᆞᆯ다

난을언ᄯᅡ나겨ᄅᆞᆫ이곳가지와ᄊᆞ옴도계이허거ᄃᆞᆫ허블
병조변병쟝이되여반왕을구허려오ᄂᆞᆫ예와아니
랴혼낭이희허단식ᄅᆞ뫼올쳡이어부ᄅᆞ혼이되기
을변희복ᄒᆞᆯ거시어한죽근손스ᄉᆞ로올쇼져의구허
시미이어변어지금일이이ᄉᆡᆯ이ᄉᆞᄅᆞ인을여한국왈
운의옥쇼졔ᄂᆞᆫ상낭을보니여주텀라허다손변
을알ᄂᆞᆫ히ᄲᆞᆯ을나왼쉬쇼한쟝왼급졔를어올소려
취텬보라화ᄉᆞᆫ시의발뫼암아강취환적을여다가ᄲᅧ
셩ᄊᆞᆺ나아괘티간손변을러간ᄲᆞᆯ을뫼ᄊᆞᆫ현당소와탐
ᄃᆞ현졍혜을알요거루재못줄나라왼쉬축하의홍와
안뫼젼일의쉬어욱발ᄂᆞᆫ셜연술여일갈견니의무
ᄃᆞ저인나즐너운근져ᄂᆡ와젼권괴뎡이병가ᄂᆞᆫ줄보ᄂᆞᆫ데
라니의그입운젼료을굴너이우ᄋᆡ한뎡들다가셔

비의 혼낭이 몸을 이ᄅᆞ혀 졀ᄒᆞ믈 입으며 ᄉᆞ왈 쳡
이 상공을 향ᄒᆞ야셔 ᄆᆞᆺ날 최변복를 ᄯᅥ 셔셩으로 ᄇᆡ
왓더니 금일 이곳의셔 장수의 몸으로 ᄆᆡᆺ나온이가
외몰목켬쳔ᄅᆞ어 쳥낭키 원수소 실켜 ᄡᅵ보ᄌᆞ렴
제 이여나라 ᄇᆡᆫ 츄즁녀ᄌᆞ의 본ᄉᆡᆨ이 아니라 다시 산를
뵈ᄃᆞ려 가ᄌᆞ 죄을 강졍아 원수의 남ᄆᆞᆫ편ᄃᆞ 줄 시션 후
ᄂᆞ거울 ᄡᅡᆯ을 가ᄒᆞ나 이리 원쉬 쳡히의 악연 왈 네 이
여외ᄃᆞ려와 심복이 엽ᄃᆞ 조무의 셩소ᄅᆞᆯ 니 낭이ᄫᅡᆼ
일켜실 ᄯᅢᆯ진ᄃᆡ 이 엇지 벅변거 악의 환난을 갓치
휘다 ᄒᆞᆯ 근본의 뢰오 홍낭이 ᄉᆡ 소왈 상공이 쳡을 ᄉᆞ
ᄃᆞ쳐 ᄒᆞ실진대 세가지 악수을 졍ᄒᆞᆯ 너 일운 쵠군
즁시난날 ᄲᅡ지 쳡을 갓가이 ᄒᆞ시ᄃᆞ 이논 쳡의 ᄒᆞᆫ 쳑

을누설치ᄯᅡ르소라안갓치삼공쥐정을몰르게
ᄒᆞ시ᄂᆞᆫ신은남방을평정ᄒᆞᆫ후나라을주어저발
으시ᄂᆞ오뢰통쳔을죽어왕호을인준줄녀쳡으로
을녀스션의부탁을져바ᄒᆡ저말게ᄒᆞᆯ시변에ᄒᆞᆫ저
조을야ᄒᆞᆫ녀죽순을보래이매원쉬웃ᄂᆞᆫ혜라ᄒᆞᆫ녀쥬
소왈속가지나속은어졈기안나졔일나속은실
신혀물혀물쳐발나홍낭이소이기뫼홀ᄒᆞᆸ이이ᄂᆞ뫼
원숙의병을정쉬되여시어셕일홍낭으로뎌졈
ᄂᆞ뢰혀시나병을박ᄃᆞ져봇혀ᄯᅢ어곰바상공을모시몬
사졍이라즈즁이필녀ᄒᆞᆫ녀홀잉의반다씨량병이
혀되나지금ᄒᆞ라가여ᄒᆞᆫ혈게시나상공은녀ᄒᆞᆫ혀술
셔언화의쌍겹을돌ᄂᆞ로변되나가더니곤두간

혼돈달방원빈뎌봉 솔아하야입뒤을홍
비올물을녀과왼쇠 홍낭을보게ᄒᆞ이라나
소손ᄯᆞ을불녀가ᄲᆞ나일녀열ᄲᆞᆫ결홍혼달은본
재홍국인이라나탹와휘하되물븟그려이재나여
게기술헐못지잇시나광곤온결ᄲᆞ란거초변환봉
의가변홍혼달이반다시쳐거쇄잇쇄긴턔ᄇᆡ졍이
티나과돌을승셔톄여의키올달녀여다리ᄃᆞ오라
소손뫼곤쟈왈홍혼달은업러현장쉬나잇ᄂᆞᆫ원쉬
소왈한일을칭검부리든소장이나라소손ᄇᆡ더경
왈ᄲᆞᆫ일그관솟을너ᄃᆞ선쥬낭ᄲᆞᆫ죄ᄇᆡ어련재어러
나와그뷔인이달녀여기술헐인무ᄭᆞ이안가ᄒᆞᄂᆞ이
다왼쉬옷ᄂᆞᆫ왈혼달은의거잇ᄂᆞᆫ잔뷔라ᄀᆡ기술헐수옷
잇시물내안난나잔곤은의심쾨ᄆᆞ올나소손ᄇᆡ지병을

장군은엇지음ᄒᆞᄂᆞᆫ뵐ᄒᆞᄂᆞᆫ샤셩이케도을
허냐호ᄃᆞ낭이칼을안ᄃᆞ답네뵐그ᄃᆡᄂᆞᆫ어ᄃᆡ현리
뎌이건대심야의심산의오시나가소슌뉘뵐부ᄋᆞᆫ병
졀ᄎᆡᆨ혹허ᄂᆞᆫ장수라장군의한가이왼뵐줌을
홈양ᄒᆞ여변복ᄒᆞ가달을ᄃᆞ왓시니ᄎᆡᆨ의낭ᄉᆔᄒᆞ온와
두월키ᄂᆞᆫ대장이되엿시나경주와대ᄌᆞᆫ젹국을의
심ᄎᆡ아내서내어ᄎᆡ장군이옹히그경육ᄒᆞᆷ이잇쇠
뇌혼의심되아닐손나혼달이소뵐장비세샹의
쾌허며기마음을이ᄂᆞᆫ견잇시변엇지슌셩의혼을뇌요
그ᄃᆡ임의허심ᄒᆞᆯᄃᆞᄒᆞᆨ의ᄒᆞᆫ경이게초한망샤ᄒᆞᆯᄃᆞ무
간이빨허여재내비록비러재못ᄒᆞ나그ᄃᆡ거ᄒᆞᆷ을보

탄완낭완슉은장군을아표보나장군은낭
완슉을모르는도다네실노완슉의병으로쎄파
완쉬북으로보내여빨를뒤흉장군은의거안는
장슉과날볼셔돌쥭지거즐헤심슐여평싱을
슨디리타를너엇지장군은의거조을시거히리오난
완쉬널치어희나릉계대착은일으지빨근제장
을쎄대험다인격을숭뎡티셰쥭근외도로아
발혜여흰혜일을가올물슨모올여전틍보주지
삼이엇지명싱평완의하슨지롱을이르리오른
탈을어청파와너희을슉겨첨음냥거외쇠검을
죨에바회을쳐쥭근개와게든별장뷔일을을
비이바회가쳐히리너결단이업스리오장군은낭

울외뢰여지순회불ᄃᆞ뢰지소순벽ᄌᆡ회ᄒᆞ여어되
청순ᄃᆞᆯᄃᆞ삼인이본진외조리와원본받지셰유ᄃᆞ
ᄉᆞ순뒤본뢰ᄃᆞ굴어가원슉거ᄃᆞ뢰가원슉거ᄃᆞ뢰지
된쉬지회ᄃᆞᆯ여왈비홍ᄒᆞᆫ탈을보건ᄃᆡ묘양
당묘를편지ᄒᆞ라삼생이대평지못ᄒᆞ리라옥서군
복을벗ᄃᆞ굴결ᄒᆞ직청의조원본받지나아가홍
혼탈의손을잡아소왈손해닐다ᄒᆞ나일쳔지하
오구쥐그다ᄒᆞ나축향지기라북와안옥이닐저봄
홀여영웅호걸을ᄒᆞᆫ채상장에삼년의이곳의와
이기ᄉᆞ쥐ᄂᆞ니어엇지참예치아니리오홍ᄒᆞᆫ탈이양
연이뒤왈만장ᄒᆞ조즐이엇지걸거울빌ᄃᆞ지오ᄂᆞ바ᄂᆞᆫ
원슉의하ᄉᆞ쟈ᄀᆞᆷ울뵈옵ᄂᆞ소장의장감

올졈ㄷ무예을익인곤쾨져와귀못봉니녑
술가흐나이다니의견홍의ㄷ쾨와손아하울갈으
쾨와을쾨노줄온소장의심불으로일홈은순아쾨
쾨아간목예을아나이다쾨더라병신의원슉쾨
장의뵤안을박울셔홍흔탈의ㄷ본을일너볼
본대충슉인이라남방의우우흘더가니쾨현표조
의지의흘넉셔금열뫼셔동ㄷ활대장이더자
ㄹ쳔별을흉흘라너쳔봉이우으니셔쾨월노장
니도쾨을빗ㄷ두번범의아롯슬거우다가셩쾬
재덕을임녀시나강온우의캴근수을보변셰내
리렬은이옷그려흘더니다열쾨대소흘더라
、쾨젼니현오흘숌일쾬궁쾰쇄